

경제적 어려움 후련이 나옵

로그노프총장강연요지...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국내정세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많이 이용되어야 하며 압축적인 이데올로기 대립과 장벽도 사라져야 한다.

소련의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은 자국의 역사, 특히 최근의 역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서 유익한 경험을 받아들여 우리 생활에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좋은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 확정된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상은 주변사상이 아니다. 사회주의사상은 아직까지 여러나라에서 생활의 바탕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소련보다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다. 어찌됐건 이와같은 소련의 정책변화는 유럽에서 특히 동구라파에서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 동·서구라파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의미는 없애지고, 단지 지리적 위치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변화의 속도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동구라파와 같은 변화 과정은 다른 지역에서도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간와 상충 모순은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많이 변할 것이다. 이의 한례로 소련도 여러 나라들과의, 특히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련의 국내정세에 대하여 말하자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아주



◇지난 30일 본관에서 로그노프 총장이 강연회하는 모습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제 공산당의 비전 없이도 서슴없이 말한다.

소련사회 내에서의 정치싸움은 이제 시작했다. 이와같은 투쟁이 지나치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 나게 되고 난폭하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특히 강소할점은 낙후된 경제적인 배경에서 급속한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구조를 창출해 내지 못해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러한 경제적인 곤란은 소련 사회의 긴장감을 더욱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 소련사회내에는 민주주의와 보수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경제적 곤란을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려고 한다. 또한 양측 모두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유발

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권을 반드시 필요하다.

소련은 현재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또한 공화국은 여러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치공화국 역시 여러개의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화국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그 공화국에 소속된 자치 공화국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 한다고 공화국에 주장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자치주에서도 일어나는 연쇄현상이 벌어져야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며칠 전 9개 공화국 최고대표들이 코르바초프대통령과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다. 그 서명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소련사회를 진정화시키는 조치이기도 했다. 어찌됐건 소련

공화국 자치 불구, 연방제 지속 필요 정치권 국내문제 권력수단으로 이용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인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당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즉 당시 공산당 총 비서인 코르바초프가 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핵무기 감축과 재래식 무기의 감축, 대결구도 의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을 가져와 세계사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소련내에서는 권력다툼을 불러오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소련은 현재 민주화 방침 아래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부정적인 현상을 편견적으로 비판했고, 이에따라 권력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전에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유망한 정치인도 있다. 그들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한다. 이들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 공산당의 덕택에 높은

사직기도 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서 바꾸고 지시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파업초기의 임금인상요구를 지급에와서는 대통령 퇴진에 그 이슈를 맞추고 있는 것들이다.

민주주의자들은 현재의 경제체제 원인을 전적으로 공산당에 전가시키고 공산당에서 탈당했다. 소련은 20세기에 들어 3번의 혁명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나의 사건으로는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대한다.

사회는 진화론적으로 즉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소련은 130여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 민족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피를 흘린 경우도 있다. 현재 소련이 자유로워지면서 여러 공화국에서는 공화국 자치제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된다고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자치에도 불구하고 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 빈곤을 하루속히 해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취재부)

환경문제 연대투쟁 단조

공해추방에 앞장선 대학 환경 관련 동아리

두산전자의 두차례에 걸친 폐놀유출사건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학교 하양캠퍼스 인근야산에서 산업폐기물이 발견되고, 또한 각 대학의 환경관련동아리들이 모여 환경운동을 펴나가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대구대학교 자연대와 농과대학 앞 구릉지에 매립된 산업폐기물이 발견돼 학생들과 인근거주 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발견된 폐기물은 지난해부터 학교측의 허가아래 폐기물처리업체인 영남산업이 환경청과 경산군의 승인을 얻어 비밀리에 매립해왔다고 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학교측은 매립된 폐기물이 재정 가능한 일반쓰레기로 전혀 유해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대주변 경산군 진랑면 일대의 주민들은 비가 오면 저수지에 검은 물이 올라오고 있으며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학생캠퍼스 구내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것, 학교측에서 무해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주변

저수지와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계속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더 넓은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대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책위를 꾸려 경산군 농민회와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으며, 여러 학내문제와 연계해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내 제단의 비리에 관련된 문제로서 학원 자주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같이 대학주변이 환경오염의 마당이 되고 있는 것과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맥을 같이 해 서울, 경인지역의 환경관련동아리들이 협의체

를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정기모임을 갖고, 환경운동학습에 대한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작성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동아리들이 학과에 관련된 동아리들로 만들어진지 대부분 1,2년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방학중에 공동으로 현장답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학교'를 개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동아리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본교 '공해문제연구회'는 협의체의 책임동아리로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책임동아리란, 아직 완전한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모임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동아리를 말한다. 이는 '공해문제연구회'가 지난 84년도에 만들어져 꾸준한 발전과 역량축적을 해온 결과이다.

이들은 현재 90년 2월에 첫호를 내기 시작한 '반공해 소식'을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호를 발행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 북한환경실태와 한반도 핵무기 상황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학기에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공해문제연구회 회장이 장수(유전·2)는 말한다.

앞으로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채구성, 함께 타대학, 공주연과 의 자료 교환, 공동조사 등을 통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협의체가 준비모임의 성격으로 있었지만 각 동아리들이 공산당임을 해나가는 데는 아직 작은 소모일 단위로 협의회에 대한 올바른 자라매김이 되지않은 상태이다.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들과 방학제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바, 무엇보다도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공유하고, 함께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각동아리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활동방향을 내리고 있는 '반전반핵'과 같은 단호한 구호적인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구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학내문제로부터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환경문제의 현상적인 면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환경관련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문제가 바로 생존권의 문제임을 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송보영 기자)

산업폐기물 매립 등 오염문제 부각 각 대학 연계속에 현장답사 등 계획

본교 공해문제연구회 김도연(환경·3)군은 "짧은 역사의 환경동아리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문제점을 소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모습을 극복하고 부문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학원내에서 대중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본교 공해문제연구회 김도연(환경·3)군은 "짧은 역사의 환경동아리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문제점을 소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모습을 극복하고 부문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학원내에서 대중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본교 공해문제연구회 김도연(환경·3)군은 "짧은 역사의 환경동아리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문제점을 소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모습을 극복하고 부문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학원내에서 대중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상부상조가 아쉬운 시대'의 모범

▼요즘의 사회를 우리는 흔히 인정이 매탈바러진 삭막한 사회라고 말한다. 혹자는 이러한 현대 사회체제를 아쉬워하며,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되고, 나쁜일은 나누면 반이된다고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본교 입학과 관련한 현대사회체제에 대해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신민철군은 작년7월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판명을 받고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을 버리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식수술을 위해

어머니와 남동생의 검사를 해본 결과 이식 불가능 판명을 받았다. 그로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던 중 신군의 할머니께서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에 수소문에 박진학 목사의 소개로 신장 이식이 가능한 '장기' 기증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 4월 부친이 타계하는 불상사까지 겹쳐 약 1천 2백만원의 수술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인해 수술을 받지못하고있던중,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된 임학과 학생 및 교수들이 지난 16일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실은 일간지 및 방송에도 보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모금 결과 약 1백50만원정도가 모금되었으며 경희의료원측에서도 지난 4월 25일 학

생측의 사정을 듣고, 수술후부터 치료 및 검사비와 기증자 검사 및 요양비를 제외한 8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신민철군이 수술을 받게 된 것과같은 일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사이에서는 매우 특별한 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이기주의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우들은 이러한 세태에 대해 하나의 모범을 창출해 내었다. 아무쪼록 하나의 모범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그리고 또 다른, 모범의 어머니로써 자리잡아 나가기를 교섭탑기 바라 는 바이다.

각동아리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활동방향을 내리고 있는 '반전반핵'과 같은 단호한 구호적인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구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학내문제로부터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환경문제의 현상적인 면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환경관련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문제가 바로 생존권의 문제임을 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송보영 기자)

HYUNDAI

한국의 빌게이트는 누구인가?

빌 게이트 12세에 컴퓨터에 입문. 하버드 대학시 BASIC을 시작으로 MS-DOS를 각종 S/W를 개발하였으며 MS35세 나이로 세계최대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경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지전적 인물

제2회 현대전자 전국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공모전

컴퓨터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전자가 우수인재발굴 및 육성, 컴퓨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2회 전국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내 창의적인 컴퓨터 문화창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각종 장학혜택과 상금이 마련됩니다.

창신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기능성으로 한국의 빌게이트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현대전자 컴퓨터 대축제에 관심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일시	장소
신상선발 및 심사	5.21~6.5	현대전자 컴퓨터 센터(서울) 시청
대선	7.3	대구
준선	7.5	대전
대선	7.8	광주
대선	7.10	대전
대선	7.16	서울
본선대회 및 시상	8.29	서울시청 8층대회의실

구분	일시	장소
신상선발 및 심사	5.21~6.5	현대전자 컴퓨터 센터(서울) 시청
대선	7.3	대전
준선	7.5	대전
대선	7.8	광주
대선	7.10	대전
대선	7.16	서울
본선대회 및 시상	8.29	서울시청 8층대회의실

구분	인원	금	인	금	인	금	인
대상	1	2,000,000원	1	500,000원	1	300,000원	1
준상	1	1,000,000원	1	250,000원	1	150,000원	1
상	2	500,000원	2	125,000원	2	75,000원	2
준상	3	250,000원	3	62,500원	3	37,500원	3
상	10	100,000원	10	25,000원	10	15,000원	10
준상	10	50,000원	10	12,500원	10	7,500원	10

4. 심사 방법: 대항선 (전문대 포함) 대학원생
5. 사용시스템: H/W: 윈도우 286, S/W: MS-DOS, BASIC, COBOL, FORTRAN, PASCAL, C 등
6. 출제 내용: 제2회 전국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수상 프로그램의 작성, 컴퓨터에 관한 입지전적 인물

1. 참가 대상: 대학생 (전문대 포함) 대학원생
2. 참가 방법: 개인 또는 단체
3. 대회 일정: ● 신청서 접수: 5/21~6/5, ● 심사: 6/6~6/10, ● 시상: 8/29 (서울시청) ● 기타: 8/29 (서울시청) ● 기타: 8/29 (서울시청)

4. 심사 방법: 소프트웨어 작품으로 심사
5. 공모 분야: 기타 S/W, 응용 S/W, 교육용 S/W, 기타
6. 사용시스템: 현대전자-286, 현대전자-386

현대컴퓨터 현대전자

컴퓨터센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4 (서강B/D)
● 컴퓨터개발부: 410-5221, 5225 ● 컴퓨터지원부: 410-5251, 5256
● 컴퓨터지원부: 410-5311 ● 컴퓨터지원부: 410-5311, 5333